

■ 서문

익숙한 것들로부터 받는 낯선 인상

김 철 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국면에서 너무나도 익숙하던 것들이 그만큼 낯설어져가고 있다. 무심결에 당연하게 지나치던 모든 일들은 이제 재고, 삼고의 필요를 지니게 된 것이다. “내가 아직도 네 친구로 보이니?”라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심지어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마저도 과연 진짜 내 모습인지를 의심해 봐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수많은 학술대회와 강연의 단골 주제로 사용되고 있는 소위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가 그러하고, 최근의 남과 여,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친구와 친구 등과 같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고, 자고 일어나면 급변하고 있는 세상의 구조가 그러하다. 즉 “견고한 모든 것들은 대기 중으로 사라지고, 성스러운 모든 것은 세속화 된다”는 마르크스(Karl Marx)의 명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실시되었던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제였던 “Encounters with the Posthuman: Materiality, Vitality, Narrativity” 역시 파릇파릇하던 인간의 호흡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아니 이미 스며들어 와있는—기계와 기술, 그리고 문명의 구릿빛 향기처럼, 매일 매 순간 낯설어져 가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러한 환경에게 말을 걸면서 새로운 친밀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올해 학술대회의 제임스조이스 세션에서는 총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거기에 세 편을 더 보태어 2018년 12월 31일 날짜로 『제임스조이스저널』 제24권 2호를 발행하게 되었다.

먼저 김경숙은 「‘셋! 조심! 에코랜드’: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 탈식민적 에코로 다시 읽기」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피네건의 경야』에서 정복자의 언어인

영어를 다성적으로 해체하여 탈식민적 메아리를 만들어 낸 조이스의 언어실험을, 스피박(Gayatri Spivak)이 새롭게 해석한 에코(Echo) 신화에 기대어 흥미롭게 파헤치면서, 대안적 역사 쓰기로서의 작품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다.

김철수의 「『경주가 끝난 뒤』, 『장자』의 우화와 함께 읽기」라는 제목의 논문은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 중 하나인 「경주가 끝난 뒤」에 나타난 마비의 대물림 현상을 『장자』의 세 우화인 ‘우물 안 개구리’와 ‘매미 잡는 사마귀’, 그리고 ‘호접몽’과 비교하여 읽음으로써, 조이스의 작품에 대한 동양철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런가 하면 조이스의 문체 속에 스며든 마조히즘의 흔적을 살펴본 이강훈의 논문 「제임스 조이스와 마조히즘의 글쓰기」는 조이스의 편지와 작품을 오가며 그의 실제적 삶과 작품 속에 반영된 마조히즘의 요소들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작품 속의 저자의 사라짐을 마조히즘의 결정체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이영심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활용된 의식의 흐름 기법 비교」라는 논문을 통해 국적이 다른 두 모더니스트들의 문체에 사용된 의식의 흐름의 양상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예술가를 지향하는 두 주인공이 자신들의 일상의 의식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구체화 시켜가는가를 밀도 있게 탐색하고 있다. 또한 이주리는 “Against Euphemism in *Mrs. Dalloway*: Virginia Woolf, the Psychiatrist, and the Lies”라는 제목의 영문 논문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자신의 작품 『달러웨이 부인』을 통해 당시 전후 상흔을 은닉할 목적으로 의사 등을 비롯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완곡어법’(euphemism)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양상들을 탐색하고, 그러한 태도들이 그녀의 자전적 삶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한다. 끝으로 최석무는 「『진흙』에 나타난 아일랜드 헬러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헬러윈이 아닌 아일랜드의 원조 헬러윈을 소개하고, 그 풍습의 변천사가 내포한 의미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전개하며, 「진흙」이라는 단편에 대한 새롭고도 흥미로운 해석을 도출한다.

애초에 투고된 총 여덟 편의 논문 중에서 어렵게 건진 여섯 편의 논문들이 교묘하게도 모두 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받는 낯선 인상’을 다룬 내용들이었고, 이러한 연구의 노력들은 다시 2019년 5월 18일에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될 “Joyce and Technological Culture”라는 제목의 국제학회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 여섯 편의 논문들에 이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와 제임스조이스 독회를 비롯한 그간의 학회 행사 및 동정에 관한 소

식들이 사진과 더불어 게재되어 읽는 이들의 흥미를 돋우게 된다.

내년이면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는 매년 2회에 걸친 학술대회와 격년 마다 실시되는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방학 중에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조이스 작품 독회를 통해 회원 간의 연구 정보 교류와 그 지평 확대 및 연구능력 제고를 모색하게 될 것이며, 매 홀수 해 봄에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최소한 5개국 이상의 학자들과 교류함으로써 세계적인 학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갈 예정이다.

함께 학술지를 발간하는 동반학회인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와 더불어 척박한 연구의 사막을 횡단하는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는 모든 익숙한 것들을 낫설게 보는 통찰의 습관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갈 것이다.

(조선대)